

#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의 비판적 검토

오형엽\*

|| 차례 ||

1. 문제 제기
2. 트랜스크리티크(Transcritique)의 의미
3. 은유로서의 건축 넘어서기
4. 근대문학의 기원과 종언
5. 비판적 검토
6.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을 통합적 수사학의 관점으로 고찰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라타니 고진의 철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방법론의 핵심인 트랜스크리티크(Transcritique: 초월론적 비평)의 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그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근대문학의 기원과 종언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티크’의 방법론을 ‘문체의 수사학’뿐만 아니라 카임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히츠-티테카, 스티븐 톨민,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등의 ‘논증의 수사학’이 지향하는 방법론으로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가라타니 고진은 『트랜스크리티크』에서 일단 칸트의 철학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각각을 “초월론적(transcendental) 또는 전위적인 비판”으로 간주한다. 칸트 특유의 반성 방법인 ‘초월론적 비판’은 한 개체의 내재적 형식을 이탈하여 그 가능 조건을 탐색함으로써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강한 ‘시차’를 형성한다. 이 비평 방법론의 핵심은 외부에서 타자의 시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랜스크리티크는 각각 그 자체로 초월론적 비판인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적 비판을 상호 ‘코드 변환’시키는 이차적 작업까지 포함

\*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다. 이것은 칸트로부터 마르크스를 읽고 마르크스로부터 칸트를 읽는 방식, 즉 윤리학과 정치경제학 사이,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적 비판 사이의 ‘코드 변환’을 지칭한다.

가라타니 고진은 『은유로서의 건축-언어, 수, 화폐』에서 건축을 하나의 은유로, 즉 무엇을 구축하려는 의지로 간주하고, 다양한 형식화가 생겨나는 하나의 체계로 다룬다. 이것은 서구 사상의 토대가 되는 형이상학을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했던 메커니즘의 다른 이름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서구 사상과 학문을 지배해온 ‘은유로서의 건축’인 ‘형식주의’에 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 질문은 랑그적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닌 “자기 지시적인 체계”에 집중된다. 그는 ‘은유로서의 건축’-‘형식주의’-‘유이론(唯我論)’을 동열에 놓고, 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타자성의 시선’을 요청한다. 비트겐슈타인이 ‘타자’를 도입했다는 것은 ‘비대칭 관계’를 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를 나름대로 전용한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틱’의 방법론은 현대수사학의 영역에서 ‘논증의 수사학’의 방법론과 일정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진다.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에서 언문일치, 풍경·내면·아동의 발견, 고백이라는 제도 등이 네이션-스테이트(nation-state)의 제도적 장치로부터 발생했다고 본다. 그가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비판하려 했던 것은 ‘문학’ ‘내면’ ‘근대’ 등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기원을 추적하는 초월론적 비판을 수행하면서 시도하는 중요한 관점은 ‘전도’이다. 그는 근대문학이 성립하는 가능 조건으로 ‘원근법’에 의한 ‘깊이’와 ‘심층’을 지적하고, 서구 근대소설의 화법과 관련하여 ‘과거시제 종결어(～쓰다)’를 든다. 가라타니 고진은 1980년대 들어 일본의 근대문학이 이러한 가능 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의 주장을 종합하면, 소설로 대표되는 근대문학의 근본 특성은 리얼리즘에 있는데, 그 가능 조건은 ‘기하학적 원근법’이라는 상징형식과 ‘3인칭 객관 묘사’라는 화법의 고안이라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3인칭 객관’이 부여하는 리얼리즘에 “획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특별한 의미”는 “소설 또는 소설가”의 “도덕적 과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가치와 의미가 제거되는 양상을 ‘근대문학의 종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이 내포한 논리적 비약이나 균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적 영역 내부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해 모순된 논법을 구사하고 있다. 둘째,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가능 조건을 포스트모더니즘을 포함한 근대소설 전체로, 더 나아가 근대문학 전체로 확장하는 데서 오는 ‘부분의 전체화’라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셋째, 문학적 영역과 사회 정치적 영역 사이의 입장 변화, 혹은 균형각각의 상실을 보여준다. 넷째, 이처럼 과감한 논리적 비약은 가라타니 고진이 ‘트랜스크리틱’의 방법론을 실천하는 과정

에서, 텍스트의 내부성을 부정하고 텍스트 바깥의 타자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과감한 이동을 시도하는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섯 째, 이 논리적 비약은 텍스트의 내부를 무시하고 외부로 이동하는 시도가 여러 단계로 중첩될 때, 어떤 초월적 차원을 설정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이상론을 펼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섯 째, 텍스트의 내부와 결별하는 텍스트의 외부를 상징하는 것은 형식논리적 이분법에 의해 구성된 오류에 해당한다.

주제어 : 트랜스크리틱, 논증의 수사학, 통합적 수사학, 시차, 이동, 코드 변환, 은유로서의 건축, 언어, 수, 화폐, 유아론, 근대문학의 기원, 근대문학의 종언, 가라타니 고진, 괴델, 비트겐슈타인, 카임 페렐만, 스티븐 톨민, 제임스 크로스하이트

## 1. 문제 제기

이 글은 한국 문학연구 및 비평을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을 통합적 수사학의 관점으로 고찰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라타니 고진의 철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방법론의 핵심인 트랜스크리틱(Transcritique: 초월론적 비평)의 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그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근대문학의 기원과 종언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sup>1)</sup>을 통해서였다. 언문일치, 풍경·내면·이동의 발견, 고백이라는 제도 등의 테마를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및 그 전도의 관점에서 성찰한 이 저서는, 근대성 및 미적 근대성의 테마를 탐색하고 있던 한국의 학계와 비평계에 참신한 충격을 준다. 니체와 푸코의 계보학적 탐색을 연상시키는 후기구조주의적 방법론을 일본근대문학의 제도·장르·문체에

1)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민음사, 1997.6.

적용시킨 독특하고 과감한 방법론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번역서가 출간된 직후에 중요한 서평<sup>2)</sup>이 제기되고, 이후 한국의 국문학계는 이러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을 광범위하게 진행시킨다.<sup>3)</sup>

이후 『은유로서의 건축』(한나래, 1998.11), 『탐구 1』과 『탐구 2』(새물결, 1998.12),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이산, 1999.5), 『윤리 21』(사회평론, 2001.11), 『유머로서의 유물론』(문화과학사, 2002.12), 『일본정신의 기원』(이매지, 2003.8), 『언어와 비극』(도서출판 b, 2004.8) 등이 지속적으로 번역되었고, 이에 대한 중요한 비평적 성과들<sup>4)</sup>도 제출되었다. 그리고 『문학동네』 41호(2004년 겨울호)에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말』이 번역 게재되고<sup>5)</sup>, 번역서인 『근대문학의 종언』<sup>6)</sup>을 통해 ‘근대문학 종언론’의 구체적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논의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의 계보학적 탐색을 탈피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고,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그 종언의 기점으로 삼은 점, 1990년대 이후의 한국

2) 백지연, 『주체의 기원, 문학의 기원』, 『무애』 1호, 1998. 5, pp.296~299./신철하, 『한 비평 의식의 궤적에 대하여』, 『무애』 1호, pp.300~303./김춘식, 『전도된 제도로서의 근대문학의 기원』, 『무애』 1호, pp.304~310.

3) 한국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은 풍속·문화론적 연구 및 아날학파의 방법론 등과도 연계되어 전개된다. 중요한 성과로서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개념 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9./권보드래,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003./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 역사, 2003./김행숙,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2005 등이 있다.

4) 김상환, 『해체론 이후의 선택』,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민음사, 1999.9, pp.413~446./신명아, 『라캉의 실재와 가라타니의 ‘초월비평’』,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8권 1호, 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06.8, pp.7~33./오길영, 『윤리와 문학-가라타니 고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34권 1호, 충남대 인문학연구소, 2007, pp.81~104.

5)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말』, 구인모 역, 『문학동네』 41호, 2004년 겨울호, pp.432~459.

6)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6.4.

문학을 사례로 삼아 근대문학의 종언을 확신하는 관점 등에서 한국 문학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sup>7)</sup>은 상당한 수준에서 가라타니 고진의 관점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정체를 밝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이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의 사유가 한국의 학계와 문학계에 던져준 참신한 충격과 당혹감 사이의 큰 격차에서도 연유된다. 그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참신한 충격은 한국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을 진전시키는 데 동력의 일부를 제공했지만, 『근대문학의 종언』을 중심으로 한 ‘근대문학 종언론’이 소개되면서 한국 문학계에 당혹감을 주며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다.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 종언론’은 현 단계 한국문학의 새로운 문학적 징후뿐만 아니라 근대문학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탐구의 필요성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참신한 충격과 당혹감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어 이 두 저서 사이에서 펼쳐지는 가라타니 고진 사유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를 느낀다. 이 규명은 필수적으로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을 관류하고 있는 푸코식의 ‘계보학적 방법론’과 『근대문학의 종언』을 관류하고 있는 헤겔식의 ‘역사철학적 방법론’ 사이의 간극을 가로질러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문학적 저서를 문학론 자체로서 고찰하기보다 정치경제학·철학·정신분석학·수학·화행론적 언어학 등을 가로지르는 그의 사상적 궤적과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황중연, 「문학의 목시록 이후-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을 읽고」, 『현대문학』, 2006.8, pp.193~215./조영일, 「비평의 운명」, 『작가세계』 72호, 2007년 봄호, pp.331~351./허병식, 「기원의 신화, 종언의 윤리학」, 『너머』, 2007년 여름호, pp.16~33./도정일, 「비평의 위기와 비평의 활력」, 『오늘의 문예비평』, 2007년 겨울호, pp.28~48./조정환, 「삶 정치적 비평의 시간」, 『오늘의 문예비평』, 2007년 겨울호, p.49~72./서영채, 「역설의 생산: 문학성에 대한 성찰」, 2009, 『문학동네』, 2009년 봄호, pp.294~318.

즉 ‘근대문학 종언론’을 좀더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라타니 고진의 문학적 논의와 사상적 논의가 상호 구분되지 않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8)</sup> 다음으로 그동안 간헐적으로 번역되어온 가라타니 고진의 저서로 인해 그의 철학적 사유나 문학적 논의가 부분적으로 인식되어 온 한계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중요한 성과를 토대로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 종언론’을 비롯한 문학론을 정치경제학·철학·정신분석학·수학·화행론적 언어학 등을 가로지르는 사상적 궤적과 관련시켜 심층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가라타니 고진 비평의 변모와 전환을 포함하여 그 전체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철학적 사유와 문학적 논의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론적 중핵을 이루는 트랜스크리티크의 원리를 고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근대문학의 종언』이 번역되기 직전에 번역된 『트랜스크리티크-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sup>9)</sup>는 가라타니 고진이 자신의 비평적 방법론을 내세우며 ‘칸트’와 ‘마르크스’의 사상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트랜스크리티크』 이전에 이미 이러한 방법론을 ‘언어’와 ‘수’와 ‘화폐’의 영역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저서로 『은유로서의 건축-언어, 수, 화폐』<sup>10)</sup>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유로서의 건축』은 『트랜

8) 실제로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번역가 시메이와 작가 나쓰메 소세키를 중심으로 시도하는 문학적 논의를 반복으로서의 역사, 교환과 폭력과 어소시에이션, 내이션과 국가, 인터넷의 가능성과 함정 등에 이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문제와 관련시켜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번역된 『세계공화국으로』(도서출판 b, 2007.6)와 『역사와 반복』(도서출판 b, 2008.5)에서도, 문학보다는 자본과 화폐와 교환, 공동체와 국가와 내이션, 세계제국과 세계경제와 어소시에이션 등 역사와 민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치중하지만,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및 종언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9)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티크』, 송태욱 역, 한길사, 2005.12.

10)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 김재희 역, 한나래, 1998.11.

스크리틱』에서 가시화된 비평 방법론인 ‘트랜스크리틱’의 방식을 이미 적용한 저서로서, 그것이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가라타니 고진 특유의 비평 방법론임을 선명히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 글은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틱』과 『은유로서의 건축』을 중심으로 비평적 방법론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트랜스크리틱(초월론적 비평)’의 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근대문학의 기원』과 『근대문학의 종언』을 중심으로 가라타니 고진의 문학론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현 단계 한국문학의 새로운 문학적 징후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엄밀한 평가를 위해서, 또한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과 종언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탐구를 위해서, 가라타니 고진 비평의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문제점 및 이론적 균열의 지점까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이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통합적 수사학’의 관점이다.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은 크게 칸트를 중심으로 한 초월론적 철학의 관점,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학의 관점, 프로이트와 라캉을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학의 관점, 피델을 중심으로 한 수학의 관점, 비트겐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화행론적 언어학의 관점 등을 가로지르며 그 구조적 상동성을 확인하면서 공유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방법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트랜스크리틱(Transcritique: 초월론적 비평)이다. 이 방법론은 일단 ‘초월론적 비판’을 통해 끊임없는 ‘이동’을 반복함으로써, 다른 언어체계 사이의 이동이 야기하는 강한 ‘시차(視差, parallax)’를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칸트로부터 마르크스를 읽고 마르크스로부터 칸트를 읽는 방식, 즉 윤리학과 정치경제학 사이,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적 비판 사이의 ‘코드 변환’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처럼 ‘초월론적 비판’을 통해 다른 언어체계 사이의 이동이 야기하는 ‘시차’를 확보하는 방식과 상호 횡단

적 ‘코드 변환’의 방식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가 방법론으로 삼은 것이 ‘통합적 수사학’의 관점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현대수사학은 크게 ‘문체의 수사학’과 ‘논증의 수사학’이라는 서로 분열된 수사학의 양상을 보여준다. 텍스트의 내부에서 표현의 형식적이고 문체론적인 방식을 다루는 ‘문체의 수사학’과, 텍스트의 내부와 컨텍스트를 연결시키면서 논증하는 방식 혹은 설득하는 기술로 정의되는 ‘논증의 수사학’은 서로 양립되기 힘들어 보일 정도로 분화되어 왔다. 따라서 각각의 진영에 속한 이론가들이 다른 진영에 속한 이론에 대한 논의를 애초부터 배제해버리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sup>11)</sup> 따라서 분열된 수사학의 간격을 메우고 수사학의 전체성을 복원하기 위해 ‘통합적 수사학’의 지향이 요청되며, 이 ‘통합적 수사학’의 관점을 문학연구나 비평에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 크리티크’의 방법론을 ‘문체의 수사학’뿐만 아니라 카임 페렐만(Chafm Perelman)과 루시 올브레히츠-티테카(Lucie Olbrechts-Tyteca), 스티븐 툴민(Stephen Toulmin), 제임스 크로스화이트(James Crosswhite) 등의 ‘논증의 수사학’이 지향하는 방법론으로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이 두 방법론은 일정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지는데, ‘문체의 수사학’과 ‘논증의 수사학’을 종합하여 ‘통합적 수사학’에 도달하려는 이 글의 방법론은 다른 언어체계 사이의 이동이 야기하는 강한 시차를 확보하는 가라타니 고진 비평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하는 데 유효한 관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1)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p.18 참고. 제라르 주네트(G. Genette), 츠베탕 토도로프(T. Todorov), 장 코앙(J. Cohen), 그루프 뒤(Grupe u) 등이 ‘문체의 수사학’을 대표한다면, 카임 페렐만(Chafm Perelman)과 루시 올브레히츠-티테카(Lucie Olbrechts-Tyteca), 스티븐 툴민(Stephen Toulmin), 미셸 메이에르(Michel Meyer), 제임스 크로스화이트(James Crosswhite) 등이 ‘논증의 수사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 2. 트랜스크리티틱(Transcritique)의 의미

가라타니 고진은 『트랜스크리티틱』에서 이전부터 적용해 오던 자신의 비평 방법론의 핵심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는 이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초월론적 비판은 횡단적(transversal) 또는 전위적(transpositional)인 이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칸트나 마르크스의 초월론적(transcendental) 또는 전위적인 비판을 ‘트랜스크리티틱(Transcritique)’이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sup>12)</sup>

가라타니 고진은 일단 칸트의 철학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각각을 “초월론적(transcendental) 또는 전위적인 비판”으로 간주한다. 칸트의 철학적 사유로부터 유래한 ‘초월론적 비판’이라는 개념은, 존재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즉 경험에 선행하는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것인데,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개체의 내재적 사유와 감각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관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sup>13)</sup> 칸트 특유의 반성 방법인 ‘초월론적 비판’은 한 개체의 내재적 형식을 이탈하여 그 가능 조건을 탐색함으로써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강한 ‘시차(視差, parallax)’를 형성한다.

그 두 고찰에 대한 비교는 확실히 강한 시차(視差)를 낳기는 한다. 하지만

12)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티틱』, 앞의 책, pp.30~31.

13) 이 시각을 통해 칸트는 인간의 오성과 감성의 형식을 고찰한 『순수이성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2006), 도덕적 윤리의 객관적 조건을 규명한 『실천이성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2002), 취미판단의 가능 조건을 규명한 『판단력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2009)을 집필한 것이다.

그 비교는 광학적 기만을 피하고 여러 개념들을, 그것들이 인간성의 인식 능력에 관하여 서 있는 진정한 위치에 두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sup>14)</sup>

가라타니 고진은 “인간성의 인식 능력”을 “진정한 위치에 두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비교”를 통한 “강한 시차”를 강조한다. 이 ‘시차’는 어떤 객관성(타자성)의 도입을 통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은 기존 철학의 대부분이 내성(거울)에 의해 시종일관한다고 보고, 이 내성으로부터 “광학적 기만”이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외부, 즉 타자성을 도입하여 강한 시차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칸트나 마르크스는 끊임없이 ‘이동’을 반복한다. 그리고 다른 언어 체계로의 이동이야말로 ‘강한 시차’를 가져온다.”<sup>15)</sup>에서 보듯,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 방법론의 핵심은 외부에서 타자의 시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6)</sup>

그런데 트랜스크리틱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가라타니 고진은 『트랜스크리틱』의 작업을 “마르크스를 칸트적 ‘비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일”<sup>17)</sup>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내가 트랜스크리틱(Transcritique)이라 부르는 것은 윤리학과 정치경제학 사이,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적 비판 사이의 코드 변환(Transcoding), 즉 칸트로부터 마르크스를 읽어내고 마르크스로부터 칸트를 읽어내는 시도이다.<sup>18)</sup>

14)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틱』, 앞의 책, p.27.

15)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틱』, 앞의 책, p.30.

16) 이런 차원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칸트의 철학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뿐만 아니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니체의 계보학까지도 초월론적 비판, 즉 트랜스크리틱으로 간주한다. 그의 비평적 궤적은 초월론적 비판을 시도하는 제만 철학·정치경제학·정신분석학·수학·언어학 등을 가로지르며 그 구조적 상동성을 확인하고 공유점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17)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틱』, 앞의 책, p.12.

트랜스크리틱은 각각 그 자체로 초월론적 비판인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적 비판을 상호 ‘코드 변환’시키는 이차적 작업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칸트로부터 마르크스를 읽어내고 마르크스로부터 칸트를 읽어내는 시도”, 즉 상호 횡단적 ‘코드 변환’ 작업을 지칭한다. 이 이차적 단계의 트랜스크리틱으로부터 “마르크스에게 코뮌리즘은 칸트적 지상 명령, 즉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가라타니 고진에게 있어 트랜스크리틱은 일본과 서양의 여러 나라, 또는 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차이’와 ‘횡단적 이동’의 체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라타니 고진은 『트랜스크리틱』의 제1부에서 이러한 ‘횡단적 코드 변환 작업’의 관점으로 칸트를 다시 읽고, 제2부에서는 마르크스를 다시 읽는다.

가라타니 고진은 칸트가 보편성을 추구했을 때 불가피하게 ‘타자’를 도입해야 했다고 본다. 그 타자는 공동주관성이나 공통감각에서 나와 동일시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며, 초월적(transcendent) 타자인 신이 아니라 초월론적(transcendental) 타자이다. 나의 시점과 타인의 시점 사이의 ‘강한 시차’에서 비롯되는 칸트의 초월론적 태도는 철두철미하게 ‘타자’로 관통한다. 그리하여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이론적 입장에서 자기·주체·자유 등을 증명하는 논의를 형이상학이라고 논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천이성비판』은 자연 필연성이 괄호에 넣어진 위상에서 자기·주체·자유 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칸트는 이론적 태도와 실천적 태도를 동시에 가져야 하며, 그 사이의 교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관념론과 경험론의 시차에서만 존재하며, 이 시차를 잃어버리면 유물론은 또 하나의 광학적 기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독일 철학과 프랑스 사회

18)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틱』, 앞의 책, p.15.

주의와 영국 경제학의 종합으로서, 그 사이의 이동을 동반한 비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는 아키즘(archism: 국가주의)과 아나키즘(anarchism: 무정부주의) 사이에 서서 양쪽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자유와 권위의 이율배반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중요한 이동 가운데 하나는 가치형태론에서 사용가치 혹은 유통과정을 중시한 데 있다. 자본이란 화폐가 생산 시설, 원료, 노동력, 생산물, 다시 화폐로 변태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본·국가·네이션·종교는 모두 교환이라는 관점, 즉 경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 3. 은유로서의 건축 넘어서기

가라타니 고진은 『은유로서의 건축-언어, 수, 화폐』에서 건축을 하나의 은유로, 즉 무엇을 구축하려는 의지로 간주하고, 다양한 형식화가 생겨나는 하나의 체계로 다룬다. 이것은 서구 사상의 토대가 되는 형이상학을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했던 메커니즘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하여 그는 “철학·문학·도시계획·언어학·문화인류학·정치경제학·정신분석학·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유를 지배하는 방식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은유로서의 건축’이라는 형태의 완강한 구속력을 파고들고자 한다.”<sup>19)</sup> 가라타니 고진은 수많은 학문 분야에서 형식주의가 출현했음을 지적하고, 은유로서의 건축을 해체한 전범으로서 ‘결정불가능성’을 수학에 도입한 괴델(Kurt Gödel)과, ‘언어 게임’이라는 실천적 윤리의 관점으로 형식주의·구조주의적 언어이론을 넘어서는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을 주목한다.

19) 사부 고오소, 『역자의 말-영어판』, 『은유로서의 건축』, 앞의 책, p.23.

고트롭 프레게(Gottlob Frege)와 버드란트 러셀(Bertrand Russell)은 수학을 논리학에 종속적으로 다루었는데, 그것이 수학의 기초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을 다시 칸트의 이율배반-결정불가능성-에 호소함으로써 비판했던 것이 괴델이고, 실천적 윤리의 방향에서 그것을 비판했던 것이 비트겐슈타인이다.<sup>20)</sup>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자연수 이론을 형식화함으로써 얻어진 공리 체계가 무모순적인 한, 그 무모순성은 그 체계와 관련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불가능한 식이 항상 존재한다. 한편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음운론의 주목할 만한 성공은 수학적 구조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랑그의 언어학도 말하는 주체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 구성되며, 따라서 랑그의 언어학은 자신의 전제로서 주체를 요구한다. 구조는 초월적 자아를 상징하고 이것과 하나가 된다. 따라서 인위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가분을 하나로 묶어 구조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장치, 즉 제로(zero)를 발견한다.<sup>21)</sup>

괴델은 자연수를 자기 지시적인 수로 소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 언어를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형식화하는 시도 그 자체가 자연 언어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라타니 고진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20)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 앞의 책, p.53.

21) 아콕슨은 이 제로를 그의 음소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도입하는데, 구조주의는 정확히 제로 기호의 도입과 함께 출현한다. 제로는 구조의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바로 여기에 현상학적 코키토가 거주한다. 구조주의적 전략을 통해서 현상학적 주체나 초월적 자아를 넘어가는 것이 환상임을 예견했던 이는 데리다이다. 이는 데리다가 현상학을 비판함으로써 구조주의를 편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현상학의 우월성을 인정한 후 그것을 해체시켜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언어에 대한 언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차이의 (형식) 체계가 아니라 자기 지시적인 체계,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체계, 즉 자기 자신과 차이를 만드는 어떤 체계다. 자기 지시적인 형식 체계, 또는 자기 자신과 차이를 만드는 차이의 체계(self-differential differential system)에는 토대도 중심도 없다. 그것은 여러 중심들을 갖고 있으며 초과적이다. 그러므로 소쉬르의 랑그라는 개념적 틀은 그러한 자기 지시성을 금지하는 데 기반하지만 여전히 자기 지시성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다.<sup>22)</sup>

가라타니 고진은 서구 사상과 학문을 지배해온 ‘은유로서의 건축’인 ‘형식주의’에 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질문은 랑그적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닌 “자기 지시적인 체계”에 집중되는데, 이 형식 체계는 “자기 자신과 차이를 만드는 차이의 체계”로서 “토대도 중심도 없다.” 예를 들면, 형식화 자체는 수학 자체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수학이 깊어진 건축에 의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화는 후기구조주의의 비의적인 담론들이 갖는 특권을 벗겨내는 데 유용하다.

가라타니 고진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형식주의의 관점에서 다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마르크스는 이전의 고전 경제학을 상품들의 거대한 집합, 즉 개개의 상품들을 원소로 모아 놓은 하나의 집합으로 환원했다고 말할 수 있다. 상품들 간에 가지는 관계의 형식은 따라서 ‘가치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인 형태의 가치’ 단계에서는 모든 상품(기호)이 메타 차원을 차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반면, 체계를 통합하는 초월적 중심은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논리적 유형화는 ‘화폐 형태’의 단계에서조차 완결될 수 없다.

가라타니 고진은 이러한 ‘형식주의’의 ‘자기 지시적인 체계’를 문제 삼으며 정적인 구조에 힘의 움직임(dynamism)을 도입하려는 비판적 운동으로

22)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 앞의 책, p.129.

서 언어학에서 랑그(langue)에 대립하는 파롤(parole)을 도입한다든지, 보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체계의 바깥을 도입하는 경우를 거론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하나의 체계와 그 바깥 간의 변증법적 상호 작용”이 생겨난다는 소쉬르식의 사고방식은 형식화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고 비판한다. 언어는 자기 지시적이기 때문에 원래 역동적이며, 따라서 언어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바깥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더 나아가 언어의 바깥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텍스트를 자기 지시적인 형식 체계로 보는 한에서만 참이라고 볼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은 철학의 형식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초월론적 비판’을 수행한다. 그는 대표적 논증이론의 수사학자인 카임 페렐만(Chaim Perelman)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수사학의 제국(The Realm of Rhetoric)』에서 카임 페렐만(Chaim Perelman)은 ‘개념의 분할’을 전통적인 수사학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일종의 논증 기술이라고 본다. 그는 현상/실재, 우연/본질, 상대적/절대적, 개별적/보편적, 추상적/구체적, 작용/실체, 이론/실천 등의 쌍들을 예로 제시한다. 그는 그 쌍을 ‘제1항/제2항’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결합된 것이 서로 완전한 반대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sup>23)</sup>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철학이란 궁극적인 규정과 완결이 불가능한 일종의 자기 지시적 체계이다. 이원적 대립의 위계를 뒤집는 일이나 대립 그 자체를 던져버리는 일은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 방식으로는 유아론(唯我論)의 그물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철학 안에서 철학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것은 오직 철학 바깥에서 그리고 형식 바깥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3)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 앞의 책, pp.174~175.

가라타니 고진이 괴델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대응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의도는 ‘증명’ 자체를 그 뿌리에서부터 의심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괴델을 사로잡고 있던 결정 가능성/결정 불가능성의 구분을 비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 수학은 그것이 공리들로부터 연역되는 한에서는 ‘견고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역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증명이란 내놓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칙에 복종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sup>24)</sup>

괴델의 방법이 해체와 관계가 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그와 유사하면서도 미묘하게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가리키고 있다. 언어의 형식주의적 틀로부터 벗어나 바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각을 발휘하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방법이다. 따라서 이를 강조하는 가라타니 고진의 관점은 니체의 계보학, 푸코의 고고학, 데리다의 해체주의 등의 방법론을 넘어서 형식의 틀 바깥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주체의 차원을 재확인하는 작업과 관련된다. 이것은 가라타니 고진에게 있어 일종의 사상적 전회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철학·문학·도시계획·언어학·문화인류학·정치경제학·정신분석학·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는 ‘은유로서의 건축’인 ‘형식주의’의 바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발휘하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은유로서의 건축’-‘형식주의’-‘유아론’을 동열에 놓고, 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타자성의 시선’을 요청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1937)에서 이 타자에 해당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나 아이들이다.

24)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 앞의 책, p.183.

외국인이나 아이들과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곧 공통의 어떤 규칙들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통의 약호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타자에게도 똑같이 의미 있는 것이다. 즉 타자-어떤 공통의 규칙들을 공유하지 않는-와의 의사소통은 항상 가르침-배움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sup>25)</sup>

비트겐슈타인이 ‘타자’를 도입했다는 것은 ‘비대칭 관계’를 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내적 확실성을 갉아먹는 타자를 결코 신으로, 즉 절대적 타자로 그리지 않는다. 그에게 타자는 언제나 아이나 외국인, 즉 상대적 타자이다. 한편 가라타니 고진은 ‘언어 게임’으로 대변되는 비트겐슈타인의 타자와의 비대칭관계를 ‘공동체/사회’라는 개념으로 전이시킨다. ‘공동체’가 규칙들의 체계 안에 갇혀 있는 공간이라면, ‘사회’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교환은 그 과정에서 규칙들이 변경되게 되어있다는 점에서, 놀이를 해 나가면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과 유사하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를 나름대로 전유한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티프’의 방법론은 현대수사학의 영역에서 카임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히츠-티테카<sup>26)</sup>, 스티븐 툴민<sup>27)</sup>, 제임스 크로스화이트<sup>28)</sup> 등이 보여주는 ‘논

25)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 앞의 책, p.190.

26) 페렐만과 티테카의 공저 『신수사학』(1968)이 지닌 의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 이후의 대안으로 메타철학으로서의 수사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다. 특히 페렐만의 작업은 청중의 중요성, 논증적 상호 작용에서의 전제와 일치점의 기본 특성, 논증에 표지를 세우는 공론과 같은 요소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논증 이론 및 담화 분석에 핵심적인 틀을 제공한다. 청중을 고려하는 논증행위를 통해 차이를 존중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현대철학과 수사학이 도외시하는 사회적 비평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수사학의 측면에서 페렐만의 논증 이론은 ‘청자’ 중심의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은 문체의 수사학, 즉 은유·환유·제유라는 ‘표현’의 측면으로 축소되어온 수사학의 관심을 ‘화자-표현-청자(청중)’이라는 의사소통의 관계망으로 확장하고, 그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검토하면서 논증행위의 윤리적

증의 수사학'의 방법론과 일정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진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차별성으로 '논증의 수사학'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시함으로써 텍스트를 포함하여 컨텍스트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반면,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틱'은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텍스트의 내부성을 부정하고 텍스트 바깥의 타자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과감한 이동을 시도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측면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줄고, 『현대문학비평과 논증의 수사학』, 『어문논집』 제56집, 2007.10, pp.333~338 참고).

27) 스티븐 툴민의 『논증의 용도』(1958)가 지닌 의의는 현대 논리학의 형식적 발전에 의해 와해된 아리스토텔레스식 정의와 질문과 의도를 재생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절차를 분석하는 데 있다. 툴민은 논증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형식논리학의 불충분함을 비판하고자 한다. 논증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하기 위해 '영역(field)' 개념을 도입하고, 양태적 용어들이 실천적 논증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실질적 기능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논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제들의 기능을 밝히고, 그 논증에 대항하는 비판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논증을 제시하고 분석하는지를 규명한다. 수사학의 측면에서 툴민의 논증 이론은 '화자' 중심의 '회용론적 언어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화자가 주장했고, 상대방이 의심하는 단언에 화자가 정당화를 가져오는 기술을 특징짓는 것이다. 이 관점은 언술의 구체적인 맥락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주장과 근거, 근거에 대한 이유와 이유에 대한 지지, 자격과 반박 등의 정당화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줄고, 『현대문학비평과 논증의 수사학』, 위의 글, pp.338~342 참고).

28)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이성의 수사학』(1996)은 페렐만과 티테카의 '청자' 중심의 '의사소통 이론'과 비트겐슈타인·오스틴·스티븐 툴민 등의 '화자' 중심의 '회용론적 언어학'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면서 논증행위 이론을 재구성한다.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 '청중'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논증행위의 이론은 차이와 갈등을 이용하여 탐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려 한다. 그리하여 이성의 수사학은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강화하고, 공준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현실 속에서 사회비평의 가능성을 옹호하며, 고등교육의 목적에 대한 신뢰할 만한 설명을 제시한다(줄고, 『현대문학비평과 논증의 수사학』, 위의 글, pp.343~349 참고).

#### 4. 근대문학의 기원과 종언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에서 언문일치, 풍경·내면·아동의 발견, 고백이라는 제도 등이 네이션-스테이트(nation-state)의 제도적 장치로부터 발생했다고 본다. 그가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비판하려 했던 것은 ‘문학’ ‘내면’ ‘근대’ 등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나스메 소세키가 『문학론』에서 제기한 질문이 서구의 자기 정체성(identity)에 대한 거부라고 본다. 거기에는 교환 가능한, 즉 재구축이 가능한 구조가 존재하는데, 우연히 선택된 구조가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역사는 필연적이고 선적(線的, linear)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니체나 푸코식의 계보학이 적용됨을 알 수 있지만, 가라타니 고진 특유의 비평 방법인 ‘초월론적 비판’이 발휘되고 있음도 확인한다. 또한 그는 구니키 돗포의 『소라치 강가』(1902)를 분석하며 풍경이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내면적 인간’에 의해 도착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풍경’의 발견은 역사와 타자의 배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풍경의 발견’은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는 선적(線的)인 역사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왜곡되고 전도된 시간성 위에 존재한다. 가라타니 고진이 기원을 추적하는 초월론적 비판을 수행하면서 시도하는 중요한 관점은 ‘전도’이다.

풍경이 일단 성립하면 그 기원은 잊혀져 버린다. 그것은 처음부터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물(object)처럼 보인다. 그러나 객관물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거꾸로 풍경 안에서 성립한 것이다. 주관 또는 자기 자신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관(주체)/객관(객체)이라는 인식론적 공간은 풍경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 즉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풍경 안에서 파생한 것이다.<sup>29)</sup>

29)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앞의 책, p.48.

가라타니 고진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의 철학이나 문학이 풍경 내부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여기서 필요한 것은 풍경 자체의 기원(역사성)을 밝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언문일치’라는 제도의 확립에서 ‘내면의 발견’을 보고자 하는 ‘전도’를 시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으로 근대문학의 주류인 소설의 원리를 규명하려 한다.

우리가 ‘깊이’를 느끼는 것은 현실·지각·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대문학의 원근법적 배치에 의한 것이다. (...중략...) 깊이감, 측정 가능한 균질 공간 또는 주관-객관이라는 인식론적 원근법은 기독교 플라토니즘적 형이상학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일본에서 ‘사소설적인 것’은 현상학적 방법과 가깝고 그것은 근대 원근법과는 다른 ‘지각 공간’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0)</sup>

아마도 이 ‘~쓰다’는 프랑스 근대소설을 지배한 단순과거에 대응할 것이다. (...중략...) 이런 의미에서 ‘다’는 근대소설 화법(narration)의 근간과 관련되어 있다. 삼인칭 서술이 등장할 수 있는 것도 ‘다’에 의한 화자의 중성화에 의해서이다.<sup>31)</sup>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문학이 성립하는 가능 조건으로 ‘원근법’에 의한 ‘깊이’와 ‘심층’을 지적한다. 그리고 서구 근대소설의 화법과 관련하여 ‘과거시제 종결어’(~쓰다)를 든다. 그는 이 연장선에서 일본의 사소설이 근대소설의 원리에서 벗어나 다른 지각 공간을 포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도출한다. 따라서 가라타니 고진은 “모노가타리는 스토리(소설)도 아니고 픽션(소설)도 아니다. 모노가타리를 쓰는 것은 ‘구성적 의지’와는 이질적인 것

30) 위의 책, pp.181~186.

31) 위의 책, pp.99~100.

이다.”(p.216)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사생문이 과거시제 ‘~쓰다’를 거부하는 것은 근대소설이 소거시키려 했던 화자를 보존시키는 일과 이어져 있다.”(p.232)고 지적한다.

가라타니 고진은 1980년대 들어 일본의 근대문학이 이러한 가능 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근대문학의 종언론’을 주장하게 된다.

1980년대에 일본의 ‘근대문학’은 결정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것은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내면’ ‘의미’ ‘작가 주체’ ‘깊이’ 같은 관념들이 부정되고, 그들에 종속되어 있던 ‘언어’가 해방되었음을 뜻한다. 말을 바꾸면, 근대문학이 배척했던 장르들, 즉 ‘언어 유희’ ‘패스티시’ ‘로망스’(SF를 포함한다) ‘새타이어’가 복권되었다는 것이다.<sup>32)</sup>

가라타니 고진이 주장하는 근대문학의 종언은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대두에 기인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그는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포함하여 일본근대문학이 종언을 고했다는 과감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데,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소설의 특성이 일단 리얼리즘에 있다고 보고, 그 가능 조건으로 화자가 있음에도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화법의 고안에 있으며, 그것의 완성된 형태가 ‘3인칭 객관 묘사’라고 지적한다. 가라타니의 주장을 종합하면, 소설로 대표되는 근대문학의 근본 특성은 리얼리즘에 있는데, 그 가능 조건은 ‘기하학적 원근법’이라는 상징형식과 ‘3인칭 객관 묘사’라는 화법의 고안이라는 것이다.

근대소설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리얼리즘에 있습니다. (...중략...) 그러나

---

32) 위의 책, p.244.

‘3인칭 객관’이 부여하는 리얼리즘의 가치를 제거하면, 근대소설이 가진 획기적인 가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야기로 돌아가 버립니다.<sup>33)</sup>

문학이 근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고, 그 때문에 특별한 중요성, 특별한 중요성, 특별한 가치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략…) 근대문학이 끝났다는 것은 소설 또는 소설가가 중요했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중략…) 문학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 문학이 도덕적 과제를 잃어지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면, 문학은 그저 오락이 되는 것입니다.<sup>34)</sup>

가라타니 고진은 ‘3인칭 객관’이 부여하는 리얼리즘에 “획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특별한 의미”는 “소설 또는 소설가”의 “도덕적 과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가치와 의미가 제거되는 양상을 ‘근대문학의 종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최근 번역 출간된 『역사와 반복』에는 ‘근대문학 종언론’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문학평론으로서 『오에 겐자부로』의 『알레고리』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풍경』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sup>35)</sup>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오에 겐자부로의 『만엔원년의 풋볼』은 우의적이지만 고유한 시점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적이다. 이런 양의성은 오에 겐자부부가 진정으로 고유명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유명을 거부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를 알레고리 작가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1973년의 풋볼』이 보여주는 정보론적 세계인식 또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인식은 현실성으로부터의 도망이고 낭만파적인 거부이며, 바꿔 말하면 고유명의 거부이다. 이 작품은 『만엔원년의 풋볼』의 패러디가 아니라 오히려 패스티시

33)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앞의 책, pp.59~61.

34) 위의 책, pp.43~53.

35) 가라타니 고진, 『역사와 반복』,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8.5, pp.105~179 참고.

라고 불러야 한다. 프레드릭 제임슨 식으로 말하면, 패스티시란 무표정한 패러디 즉 유머의 센스를 잃은 패러디이며, 무표정한 아이러니의 현대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 5. 비판적 검토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교훈 삼아 한국문학에서 근대문학의 기원과 종언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즉 논리적 비약이나 균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이 내포한 논리적 비약이나 균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적 영역 내부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해 모순된 논법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라타니 고진은 ‘기하학적 원근법’과 ‘3인칭 객관 묘사’라는 근대소설의 가능 조건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제거되면 그 획기적인 의의도 상실되고 만다고 주장한다.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대로 근대문학이 획기적인 가치와 의의를 가진 것이 라면,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이후 줄곧 그것이 허구임을 증언해 온 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근대문학의 제도가 전도시킨 가치와 의의, 즉 허구가 획기적인 가치로 변화되는 것은 모순된 논법이다.<sup>36)</sup>

36) 또 하나의 예로, 근대문학의 가능 조건에서 벗어나는 형식적 특성에 대해서 “사생문 이 과거시제 ‘~ㄴ다’를 거부하는 것은 근대소설이 소거시키려 했던 화자를 보존시키는 일과 이어져 있다.”(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앞의 책, p.232)라는 근대소설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3인칭 객관’이 부여하는 리얼리즘의 가치를 제거하면, 근대소설이 가진 획기적인 가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야기로 돌아가 버립니다.”(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앞의 책, p.6)라는 근대소설에 대한 긍

둘째,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기능 조건을 포스트모더니즘을 포함한 근대 소설 전체로, 더 나아가 근대문학 전체로 확장하는 데서 오는 ‘부분의 전체화’라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것은 사실 범주들 사이의 ‘직선적 코드 변환’이 이야기하는 ‘영역간 혼동’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문학적 영역과 사회 정치적 영역 사이의 입장 변화, 혹은 균형감각의 상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균열은 사실 범주들 사이의 ‘직선적 코드 변환’이 이야기하는 ‘영역간 혼동’뿐만 아니라, 사실 범주와 가치 범주 사이의 ‘영역간 혼동’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라타니 고진이 주장하는 “근대 소설이 가진 획기적인 가치”는 정치나 역사나 사회에 대한 “도덕적 과제”인데, 모든 문학이 이런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근대 리얼리즘 소설만이 이런 가치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역사철학적 근대성의 관점으로 미적 근대성을 억압하고 폄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넷째, 이처럼 과감한 논리적 비약은 가라타니 고진이 ‘트랜스크리틱’의 방법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내부성을 부정하고 텍스트 바깥의 타자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과감한 이동을 시도하는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학문·문학·예술·사회·정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범주들은 상호 차별되는 고유한 내부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외부와 관계를 맺는데<sup>37)</sup>, 구조적 상동성만을 고려하여 외부적 타자성의 관점으로 차이를 관통하는

---

정적 평가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과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37) 이 점은 ‘논증의 수사학’뿐만 아니라 ‘진리의 생산’과 ‘주체의 형성’을 주장하는 알랭 바디우의 사유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바디우에 의하면, 진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된다. 과학, 예술, 정치, 사랑이라는 네 가지 ‘진리의 유적 절차들’은 각각의 고유한 실천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절차들이다. 이질적인 고유의 영역에서 ‘사건’과 ‘진리’에 의해 존재가 아닌 작용으로서의 ‘주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바디우는 이 절차들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특정한 절차에 다른 절차를 종속시키는 것을 ‘봉합(suture)’이라고 부른다. 알랭 바디우, 『조건들』, 이종영 역, 새물결, 2006, pp.73~117 참고.

방식은 사실 범주들 사이의, 그리고 사실 범주와 가치 범주 사이의 ‘영역간 혼동’으로 인한 논리적 비약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 째, 이 논리적 비약은 텍스트의 내부를 무시하고 외부로 이동하는 시도가 여러 단계로 중첩될 때, 어떤 초월적 차원을 설정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이상론을 펼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가라타니 고진이 시도한 신연합주의 운동(New Associationist Movement, 약칭 NAM)이 현실에서 원활히 작용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가라타니 고진이 “솔직히 말하면 어소시에이션리즘에 의한 자본제=네이션=스테이트의 지양은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되기는커녕 몇 세기에 걸리는 운동이다.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국가권력에 호소하게 된다. 그것은 국가를 강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사회는 결코 성급하게 실현되어서는 안된다.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sup>38)</sup>라는 언급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 글은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티키 내재적 초월론이 아니라 외재적 초월론으로 전개되는 경향을 다분히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섯 째, 텍스트의 내부와 결별하는 텍스트의 외부를 상정하는 것은 형식논리적 이분법에 의해 구성된 오류에 해당한다.<sup>39)</sup>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티키 중시하는 외부의 타자가 오히려 전능한 주체로 작용함으로써 역으로 내부의 주체를 억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부의 타자가 처음에 올 수 있고 직접 체험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그것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 사유의 방식은 새로운 억압을 야기할 수 있다. 철학적·문학

38) 가라타니 고진, 『일본정신의 기원』, 송태욱 역, 이매지, 2003, pp.181~182.

39) 우리가 발견하는 외부는 언제나 텍스트 내부로 기입되어 있는 외부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외부는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독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은 『은유로서의 건축』 이후 타자를 텍스트의 외부에서,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체험하고 구축하고 있다. 김상환, 『해체론 이후의 선택』, 앞의 글, pp.416~417 참고.

적·정치적·사회적 텍스트 외부의 전능한 주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외부의 타자도 텍스트 내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6. 맺음말

이 글은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을 통합적 수사학의 관점으로 고찰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그의 철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방법론의 핵심인 트랜스크리티크(Transcritique: 초월론적 비평)의 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그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근대문학의 기원과 종언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문체의 수사학’과 ‘논증의 수사학’을 종합하는 ‘통합적 수사학’의 방법론을 통해,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티크』과 『은유로서의 건축』을 중심으로 비평적 방법론의 중핵을 이루는 ‘트랜스크리티크’의 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근대문학의 기원』과 『근대문학의 종언』을 중심으로 가라타니 고진의 문학론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가라타니 고진은 『트랜스크리티크』에서 일단 칸트의 철학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각각을 “초월론적(transcendental) 또는 전위적인 비판”으로 간주한다. 칸트 특유의 반성 방법인 ‘초월론적 비판’은 한 개체의 내재적 형식을 이탈하여 그 가능 조건을 탐색함으로써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강한 ‘시차’를 형성하게 된다. 이 비평 방법론의 핵심은 외부에서 타자의 시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랜스크리티크는 각각 그 자체로 초월론적 비판인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적 비판을 상호 ‘코드 변환’시키는 이차적 작업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칸트로부터 마르크스를 읽고 마르크스로부터 칸트를 읽는 방식, 즉 윤리학과 정치경제학 사이,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

적 비판 사이의 ‘코드 변환’을 지칭한다.

가라타니 고진은 『은유로서의 건축-언어, 수, 화폐』에서 건축을 하나의 은유로, 즉 무엇을 구축하려는 의지로 간주하고, 다양한 형식화가 생겨나는 하나의 체계로 다룬다. 이것은 서구 사상의 토대가 되는 형이상학을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했던 메커니즘의 다른 이름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수많은 학문 분야에서 형식주의가 출현했음을 지적하고, 은유로서의 건축을 해체한 전범으로서 ‘결정불가능성’을 수학에 도입한 괴델과, ‘언어 게임’이라는 실천적 윤리의 관점으로 형식주의·구조주의적 언어이론을 넘어서는 비트겐슈타인을 주목한다. 가라타니 고진은 서구 사상과 학문을 지배해온 ‘은유로서의 건축’인 ‘형식주의’에 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 질문은 랑그격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닌 “자기 지시적인 체계”에 집중된다. 가라타니 고진이 ‘은유로서의 건축’-‘형식주의’-‘유아론’을 동열에 놓고, 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타자성의 시선’을 요청한다. 비트겐슈타인이 ‘타자’를 도입했다는 것은 ‘비대칭 관계’를 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를 나름대로 전유한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틱’은 현대수사학의 영역에서 카임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히츠-티테카, 스티븐 톨민,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등이 보여주는 ‘논증의 수사학’의 방법론과 일정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진다. ‘논증의 수사학’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시함으로써 텍스트를 포함하여 컨텍스트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반면,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틱’은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텍스트의 내부성을 부정하고 텍스트 바깥의 타자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과감한 이동을 시도한다.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에서 언문일치, 풍경·내면·아동의 발견, 고백이라는 제도 등이 네이션-스테이트(nation-state)의 제도적 장치로부터 발생했다고 본다. 그가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비판하려 했던 것은 ‘문학’ ‘내면’ ‘근대’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니체나 푸코식의 계보

학이 적용됨을 알 수 있지만, 가라타니 고진 특유의 비평 방법인 ‘초월론적 비판’이 발휘되고 있음도 확인한다. 가라타니 고진이 기원을 추적하는 초월론적 비판을 수행하면서 시도하는 중요한 관점은 ‘전도’이다. 그는 근대 문학이 성립하는 가능 조건으로 ‘원근법’에 의한 ‘깊이’와 ‘심층’을 지적하고, 서구 근대소설의 화법과 관련하여 ‘과거시제 종결어(~쓰다)’를 든다. 가라타니 고진은 1980년대 들어 일본의 근대문학이 이러한 가능 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의 주장을 종합하면, 소설로 대표되는 근대문학의 근본 특성은 리얼리즘에 있는데, 그 가능 조건은 ‘기하학적 원근법’이라는 상징형식과 ‘3인칭 객관 묘사’라는 화법의 고안이라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3인칭 객관’이 부여하는 리얼리즘에 “획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특별한 의미”는 “소설 또는 소설가”의 “도덕적 과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가치와 의미가 제거되는 양상을 ‘근대문학의 종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이 내포한 논리적 비약이나 균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적 영역 내부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해 모순된 논법을 구사하고 있다. 근대문학의 제도가 전도시킨 가치와 의의, 즉 허구가 획기적인 가치로 변화되는 것은 모순된 논법이다. 둘째,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가능 조건을 포스트모더니즘을 포함한 근대소설 전체로, 더 나아가 근대문학 전체로 확장하는 데서 오는 ‘부분의 전체화’라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것은 사실 범주들 사이의 ‘직선적 코드 변환’이 이야기하는 ‘영역간 혼동’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문학적 영역과 사회 정치적 영역 사이의 입장 변화, 혹은 균형감각의 상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균열은 사실 범주들 사이의 ‘직선적 코드 변환’이 이야기하는 ‘영역간 혼동’뿐만 아니라, 사실 범주와 가치 범주 사이의 ‘영역간 혼동’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라타니 고진이 역사철학적 근대성의 관점으로 미적 근대성을 억압하고 폄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넷째, 이처럼 과감한 논리적 비약은

가라타니 고진이 ‘트랜스크리티티’의 방법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내부성을 부정하고 텍스트 바깥의 타자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과감한 이동을 시도하는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섯 째, 이 논리적 비약은 텍스트의 내부를 무시하고 외부로 이동하는 시도가 여러 단계로 중첩될 때, 어떤 초월적 차원을 설정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이상론을 펼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섯 째, 텍스트의 내부와 결별하는 텍스트의 외부를 상정하는 것은 형식논리적 이분법에 의해 구성된 오류에 해당한다.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티티가 중시하는 외부의 타자가 오히려 전능한 주체로 작용함으로써 역으로 내부의 주체를 억압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티크』, 송태욱 역, 한길사, 2005.
-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언어, 수, 화폐』, 김재희 역, 한나래, 1998.
- 가라타니 고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민음사, 1997.6.
-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말』, 구인모 역, 『문학동네』 41호, 2004년 겨울호, pp.432~459.
-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6.4.
- 가라타니 고진, 『탐구 1』, 송태욱 역, 새물결, 1998.12.
- 가라타니 고진, 『탐구 2』, 송태욱 역, 새물결, 1998.12.
- 가라타니 고진,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김경원 역, 이산, 1999.5.
- 가라타니 고진, 『윤리 21』, 송태욱 역, 사회평론, 2001.11.
- 가라타니 고진, 『유머로서의 유품론』, 이경훈 역, 문화과학사, 2002.12.
- 가라타니 고진, 『일본정신의 기원』, 송태욱 역, 이매지, 2003.8.
- 가라타니 고진, 『언어와 비극』,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4.8.
- 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7.6.
- 가라타니 고진, 『역사와 반복』,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8.5, pp.105~179.

### 2. 논문

-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개념 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9.
- 김상환, 『해체론 이후의 선택』,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민음사, 1999.9, pp.413~446.
- 김춘식, 『전도된 제도로서의 근대문학의 기원』, 『무애』 1호, pp.304~310.
- 도정일, 『비평의 위기와 비평의 활력』, 『오늘의 문예비평』, 2007년 겨울호, pp.28~48.
- 백지연, 『주체의 기원, 문학의 기원』, 『무애』 1호, 1998. 5, pp.296~299.
- 서영채, 『역설의 생산: 문학성에 대한 성찰』, 『문학동네』, 2009년 봄호, pp.294~318.
- 신명아, 『라캉의 실재와 가라타니의 ‘조월비평’』,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8권 1호, 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06.8, pp.7~33.
- 신철하, 『한 비평 의식의 궤적에 대하여』, 『무애』 1호, 1998. 5, pp.300~303.

- 오길영, 『윤리와 문학-가라타니 고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34권 1호, 충남대 인문학연구소, 2007, pp.81~104.
- 오형엽, 『현대문학비평과 논증의 수사학』, 『어문논집』 제56집, 2007.10, pp.325~362.
- 정승원, 『가라타니 고진, 그 가능성의 중심』, 『문예미학』 제12호, 문예미학회, 2006. pp.195~212.
- 조영일, 『비평의 운명』, 『작가세계』72호, 2007년 봄호, pp.331~351.
- 조정환, 『삶정치적 비평의 시간』, 『오늘의 문예비평』, 2007년 겨울호, pp.49~72.
- 하병학, 『학제적 학문탐구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논증론(논변론)』, 『철학연구』 제58집, 2002, pp.61~73.
- 황중연, 『문학의 묵시록 이후-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을 읽고』, 『현대문학』, 2006.8, pp.193~215.
- 허병식, 『기원의 신화, 종언의 윤리학』, 『너머』, 2007년 여름호, pp.16~33.
- 사부 고오소, 『역자의 말-영어판』, 『은유로서의 건축』, 한나래, 1998, p.23.
- Gerard Genette, 『줄어드는 수사학』, 김경란 역, 『수사학』, 김현 편, 문학과지성사, 1985, pp.117~143.
- Pernot, Laurent, 『수사학의 시대』, 『수사학』 제1집, 2004, pp.23~35.

### 3. 단행본

- 권보드래,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 김인환, 『비평의 원리』, 나남, 1994.
- 김행숙,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2005.
-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p.18.
- 우찬제, 『텍스트의 수사학』, 서강대 출판부, 2005.
- 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003.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 역사, 2003.
- Badiou, Alain, 『조건들』, 이종영 역, 새물결, 2006, pp.73~117.
- Bakhtin, Mikhail M, 『문예학의 형식적 방법』, 이득재 역, 문예출판사, 1992.
- Crosswhite, James,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역, 고려대출판부, 2001.
- Foucault, Michel,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역, 민음사, 1992. pp.17~42.
- Guerrero, Hernandez 외, 『수사학의 역사』, 강필운 역, 문학과지성사, 1985.

- Kant, I.,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6.
- Kant, I.,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2.
- Kant, I., 『판단력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9.
- Nelson, J. S. 외, 『인문과학의 수사학 -학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언어와 논증』, 박우수·양태종 외역, 고려대출판부, 2003.
- Perelman, Chařm·Olbrechts-Tyteca, L., *The New Rhetoric: A Treatise on Argumentation*, trans. John Wilkinson and Purcell Weaver. 1958; University of Notreame Press, 1969.
- Plett, Heinrick F.,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양태종 역, 동인, 2002.
- Reboul, Olivier, 『수사학』, 박인철 역, 한길사, 1989.
- Richards, I.A., 『수사학의 철학』, 박우수 역, 고려대 출판부, 2001.
- Sloane, Thomas O., *Encyclopaedia of RHETORIC*,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Toulmin, Stephen E., 『논증의 용도(논변의 사용)』, 고현범·임건태 역, 고려대 출판부, 2006.
- Wittgenstein, L.,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역, 책세상, 2006.5.
- Wittgenstein, L.,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책세상, 2006.5.

## Abstract

## The Critical Investigation of Karatani Kojin's Criticism

Oh, Hyung-Yup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examine Karatani Kojin's Criticism in viewpoint of synthetic rhetoric, and to investigate the special quality and problem critically. We investigate principle of 'transcritique' that is point of methodology laying stress on philosophical thought of Karatani Kojin, and examines 'origin and death of modern literature' critically laying stress on his literary theory. It makes important segment of this writing that investigates Karatani Kojin's methodology of 'transcritique' with methodology of 'rhetoric of argument' of Chaïm Perelman·Lucie Olbrechts-Tyteca, Stephen Toulmin, James Crosswhite as well as 'rhetoric of figure'.

Karatani Kojin regards Kant's philosophy and Marx's plutonomy each as 'transcendental criticism' in *Transcritique*. 'Transcendental criticism' forms strong parallax between inside and outside by bolts from internal form of one individual and searches the possibility condition. Point of this criticism methodology is that secure other's gaze from outside. 'Transcritique' includes secondary work that converse code mutually Kant's criticism and Marx's criticism.

Karatani Kojin regards architecture as one metaphor, that is, will to construct something, and handle to one system that various formalization is created in *Architecture as Metaphor-Language, Number, Money*. He keeps 'architecture as metaphor'-'formalism'-'solipsism' to same meaning, and requests other's gaze as method that pass over this. It means introducing 'asymmetric relation' that Ludwig Wittgenstein introduced 'other'. Karatani Kojin's methodology of 'transcritique' that introduced Wittgenstein's

thought has fixed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with methodology of 'rhetoric of argument' in modern rhetoric.

Karatani Kojin regards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sighting of scenery · the inside · child, confession system as the thing happened from systematic device of 'nation-state' in *Origin of Japanese Modern Literature*. He thinks that special quality of modern literature that is represented to novel is realism, the possibility condition is idea of 'geometrical perspective' and 'objective description by third person'. Karatani Kojin regards that there is epoch-making value in realism with 'objective description by third person'. This special meaning can be summarized as moral subject of novel or novelist. He regards aspect that these value and meaning is removed as 'death of modern literature'.

It is as following if Karatani Kojin's criticism contains logical leap or crack. First, it shows inconsistent reasoning about same fact in literary area inside. Second, it expose the problem of 'making a part to whole' that possibility condition of modern realism novel is extended to whole modern novel including postmodernism novel, to furthermore whole modern literature. Third, it shows situation change or loss of sense of balance between literary area and socio-political area. Fourth, such bold logical rapid progress appears notably in case Karatani Kojin tries bolder movement by denying inside of text and emphasizes outer other of text in process that practice methodology of 'transcritique'. Fifth, this logical leap occurs juncture that spread idealism which establish certain transcendent dimension and lacks actuality when attempt that ignores inside of text and moves to outside is overlaped in several steps. Sixth, supposing outside of text that is seperated with inside of text correspond to mistake consisting by dichotomy of formal logic.

Key-words : transcritique, rhetoric of argument, synthetic rhetoric, parallax, movement, transcoding, architecture as metaphor, language, number, money, solipsism, origin of modern literature, death of modern literature, Karatani Kojin, Kurt Gödel, Ludwig Wittgenstein, Chaïm Perelman, Stephen Toulmin, James Crosswhite.

오형엽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445-743)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국문과 교수실(인문관 513호)

전화번호 : 031-229-8131, 010-2026-6478

전자우편 : ohyup@suwon.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12월 14일 게재 확정됨.